

손흥민 없는 '반쪽' 벤투호, 숙명의 한일전

유럽과 주축 부상·코로나19 여파 일본 원정 불참
일본 대표팀 코치 코로나 확진으로 우려 목소리
오늘 10년 만의 한일전, 관중 최대 1만명 입장
손흥민 빠진 벤투호...이강인·정우영 활약 기대

손흥민(토트넘) 등 주축 선수가 대거 빠진 가운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5일 일본 축구대표팀과 숙명의 한일 친선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를 뚫고 일본 원정길에 나선 벤투호는 25일 오후 7시20분 일본 요코하마의 닌산 스타디움에서 일본 대표팀과 역대 80번째 한일전을 갖는다. 친선 경기로는 지난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 원정(0-3 패배) 이후 10년 만이다.

한일전은 3월 예정됐던 2022 국제 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코로나19 여파로 6월로 미뤄지면서 일본축구협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대한축구협회 기준 통산 80번째 한일전으로 앞서 79경기를 치러 42승23무14패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일본 원정도 30전 16승8무6패로 앞선다.

10년 만의 한일 친선 경기가 열리는 닌산 스타디움은 2002 한일월드컵 결승 장소로, 그동안 두 차례 한일전이 열려 한국이 1무1패로 열세다.

경기는 유관중으로 치러진다. 앞서 일본축구협회가 최대 수용 인원 5000명으로 입장 티켓을 오픈했는데, 일본 수도권에 발령됐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5000명이 추가된 최대 1만 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뜨거운 관심에도 손흥민 등 주축 선수가 대거 빠진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 당초 손흥민을 비롯해 유럽에서 뛰는 주축 선수들이 소집 명단에 포함됐지만, 부상과 코로나19 악재로 합류가 불발됐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дер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입어 최종적으로 차출이 불발됐다. 황희찬도 소집 명단에 올랐다가 독일 작센주 보건 당국의 격리 규정에 따라 차출이 무산됐다.

앞서 프랑스에서 뛰는 황의조(보르도)는 구단 방침에 의해 빠졌고, 소속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재성(울슈타인 킬)도 소집에서 제외됐다. 또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김민재(베이징궈안), 손흥호(산둥루닝)는 소속팀 조치에 따라 합류하지 못했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주세종(감바오사카), 엄원상(광주), 윤빛가람(울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과 부상으로 낙마했다. 대신 조재완(강원), 이진현(대전), 김인성, 이동경(이상 울산)이 대체 발탁됐다. 이동경의 추가로 울산은 K리그 구단 중 가장 많은 7명이 일본 원정길에 올랐다.

주력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일부에선 사실상 2군에 가까운 '반쪽 대표팀'이란 지적도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선수 차출을 놓고 프로 구단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7명의 선수가 차출된 흥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23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하마의 한 경기장에서 25일 열리는 일본 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울산 감독은 소통의 부재에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까지 따라야하는 이 중에도 견뎌야 한다. 실제로 벤투호는 지난 22일 일본 입국수속에만 2시간 가량을 보내는 등 이동에도 많은 제약이 받았다.

또 23일에는 일본 대표팀의 사이트 도시히데 코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일본축구협회는 사이트 코치와의 밀접 접촉자가 없다며 한일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 등 주축이 없지만, 한일전을 허투루 넘길 순 없다. 역대 한일전에선 패배에 대한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

가장 큰 기대를 받은 건 유럽과 중 유일하게 이번 일본 원정에 합류한 이강인(발렌시아)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다. 둘은 하루 늦은 23일 일본에 도착했다.

특히 막내급인 이강인은 벤투호 황태자인 황인범(루빈간자)과 울산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윤빛가람이 없는 중원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끈 뒤 골든볼(MVP)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주전 입지를 다지 지 못했다. 최근 선발과 교체로 출전 시간을 늘려왔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고 있는 정우영은 첫 A매치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발탁 당시 벤투 감독은 "꾸준히 관찰한 선수"라며 "직접 소집해 파악하고 싶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 밖에도 벤투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 선수들도 한일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측면 자원인 김인성, 이동준은 벤투호의 빠른 침투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소속팀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원두재는 김영권(감바오사카)과 함께 최후방에 설 전망이다. 골문은 조현우가 유력하다.

뉴스

'유럽파' 정우영 "이강인과 호흡 기대"

숙명의 한일전을 앞둔 벤투호 '유럽파' 정우영(22·프라이부르크)이 이강인(20·발렌시아)과의 호흡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우영은 24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성인 대표팀에 뽑혀서 정말 기분이 좋다. 중요한 한일전에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에 뛸 수 있다면 팀에 도움이 되고 승리하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은 벤투호에 최초 발탁됐다. 생애 첫 A매치를 한일전으로 치를 가능성이 크다.

유럽파는 정우영과 함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두 명뿐이다.

정우영은 "저의 장점을 보여주면 좋은 시너지가 돼 경기장에 보여질거라 생각한다"면서 "아무래도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는 누가 뛰든 책임감을 갖고 나선다"고 했다.

이강인과의 호흡에 대해선 "어렸을 때 (이)강인이라 함께 좋은 장면과 호흡을 만든 적이 있다. 한일전에 같이 뛰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기대가 많이 된다"며 웃었다.

소속팀에서 중앙과 측면을 담당하는 정우영은 벤투호에서도 상황에 따라 사이드와 가운데를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원사이드에서 뛸 때는 일대일 상황이 많이 나와서 좋고, 가운데에선 활동량으로 많이 뛰고 압박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뉴스

수비수 김영권 "미나미노, 조심 할 선수"

숙명의 한일전을 앞둔 벤투호 핵심 수비수 김영권(31·감바오사카)이 일본 대표팀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로 '유럽파' 미나미노 다쿠미(사우샘프턴)를 꼽았다.

김영권은 24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미나미노가 중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공격에도 가담한다. 골도 넣을 줄 아는 선수다. 조심해야 할 선수라는 건 확실하다"며 "다른 선수들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 소속으로 이번 시즌 사우샘프턴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미나미노는 공격 전 지역을 뛸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2013년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카사에서 프로에 데뷔, 2015년 오스트리



아 분데스리가 레프트백 잘츠부르크로 이적해 황희찬(라이프치히)과 한술밥을 먹기도 했다.

김영권은 유럽 최고의 무대 중 하나인 EPL에서 뛰는 미나미노가 일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선수라며 경계했다.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헝다에서 뛰던 2019년부터 J리그 감바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김영권은 "J리그에서 상대했던 선수들을 만나게 됐다. 경기장도 뛰어 본 곳이다.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도 많이 된다"고 했다.

뉴스

펜싱 여자 에페, 카잔월드컵 단체전 은메달...올림픽 출전 확정

남자 에페도 도쿄 티켓 확보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카잔 월드컵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이혜인(강원도청)이 출전한 여자 에페 대표팀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24-25로 저 준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폴란드에 아쉽게 패했다.

이번 카잔월드컵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 중단됐다 재개된 첫 국제 대회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개인전에서 최인정이 금메달, 강영미가 동메달을 딴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선전했다. 박상영(울산광역시청), 권영준(익산시청), 송재호(화성시청), 마세진(부산광역시청)이 나선 남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8강에서 이탈리아에 40-44로 패해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로써 남녀 에페 대표팀은 도쿄올

림픽 단체전 출전을 확정했다.

올림픽 펜싱은 남녀 사브르-에페-플뢰레 등 종목별로 8개국 단체전에 나설 수 있는데,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하면 해당 종목에 국가당 3명이 개인전에 참가할 수 있다.

세계랭킹 1위인 남자 사브르와 4위인 여자 사브르는 팀 랭킹 1-4위에 주어지는 단체전 우선 출전권을 따냈고, 여자 에페는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세계랭킹 4위가 되면서 도쿄행을 확보했다.

남자 에페는 세계랭킹 5위지만, 아시아-오세아니아(권역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남녀 플뢰레는 단체전이 무산됐지만, 개인전은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이 확정됐다.

전인지 "2016년 올림픽 출전 큰 영광...다시 한 번 도전"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포기하는 없다. 전인지가 도쿄올림픽을 위해 땀을 흘린다.

전인지는 24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기아 클래식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2020 도쿄올림픽 출전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전인지는 4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박인비, 양희영, 김세영과 함께 출전했다.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골프의 금메달은 박인비의 몫이었다. 전인지는 공동 13위라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전인지는 "2016년 올림픽 참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한국을 대표해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고, 동시에 부담감도 굉장했다"면서 "내 경기를 다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점이 다시 한 번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림픽 골프에는 남녀 각각 60명이 출전한다. 국가당 2명 출전이 원칙이지만, 6월 말 기준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같은 국가 선수들이 몰려 있을 경우 국가당 최대 4명까지 나설 수 있다.

현재 전인지의 세계랭킹은 50위에 불과하다. 뜻을 이루기 위해 고전성(1위), 김세영(2위), 박인비(4위), 김효주(8위) 등 넘어야 할 산이 즐비하다.

전인지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대표에 뽑힌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도전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15차례 대회에서 우승 없이 두 차례 톱10에 그쳤던 전인지는 올해 3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으로 부활을 알렸다.

전인지는 "잘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연구와 연습을 많이 했다. 잘 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하다보니 지금 그때처럼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해지고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현재는 심적으로 많이 회복했다. 전인지는 "지금의 나는 좀 다르다. 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보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나도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계속 걸어나가면서 성적도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감독의 확고한 믿음 "김하성, 괜찮아"

"몇가지 적응할 부분 있어...지금 그것들 수행하는 중"

이 없다. 오히려 방향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제이스 킵pler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감독은 24일(한국시간)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김하성의 시범경기 부진을 두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BO리구를 평정하고 오랜 꿈이었던 미국 진출에 성공한 김하성은 혹독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시범

경기일 뿐이지만 타율이 0.125(32타수 4안타)에 불과하다.

킵pler 감독은 현재 부진을 일종의 통과리듬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킵pler 감독은 "김하성은 몇 가지 적응할 부분이 있다. 지금은 그것들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수들의 공을 눈에 익히는 것이다.

KBO리그에서 체력 부담이 큰 유격수를 소화하면서 한 시즌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할 정도로 타격재능이 뛰어난 김하성이지만 MLB는 또 다른 무대다.

팅글러 감독은 "투수들은 더 빠른 공과 더 움직임이 많은 공을 던진다. (MLB로) 오는 선수들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도 "사실 김하성에게 꽤 만족하고 있다. 그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타석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MLB닷컴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하성의 시범경기 부진이 개막 엔트리 진입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구단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팅글러 감독은 "김하성은 공을 정말 잘 보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과거 잘했던 경험도 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라고 성공을 확신했다.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애를 먹고 있는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지만, 감독은 걱정